

# O.M.Ungers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르네 마그리트의 이중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oubleness of Rene Magritte appeared in the Architecture of O.M.Ungers

이병욱\* / Lee, Byung-Wook  
김용승\*\* / Kim, Yong-Seung  
박용환\*\*\* / Park, Yong-Hwan

## Abstract

One of the prominent phenomena since 1960's is the diversity of concepts. It is to deny the standard of meta structure in judging value as a framework of truth understanding. M. Foucault says that we are living in a synchronous, parallel, and scattered epoch. In the architectural approach and interpretation of Ungers, such a phenomenon appears as multi-dimensional relations. The works of Ungers show the concrete manifestation of such thoughts since 1960's. He has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German architecture through his book 'Architecture as Theme' and architectural works.

His architecture has focuses on analogy and abstraction on the foundation of his well defined theory. As the features, it shows dialectic relations, mix of confrontation, interests in geometry and morphology.

In this respects, the paper trie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architectural thoughts and the paintings of Rene Magritte in terms of the attributes of doubleness in the sense of a paradox. Ungers himself refers that he was directly influenced by Magritte.

키워드 : Ungers, 르네마그리트, 이중성

## 1. 서론

1960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개념의 다양화는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에 있어 일원론적 의미로서의 진리 이해의 틀을 거부하는 것으로 미셸푸코는 “오늘날을 공간의 시대로 정의하며 우리는 동시성, 병존, 근접과 이격, 산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sup>1)</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웅어스(Oswald Mathias Ungers)의 건축의 접근 및 해석에 있어서도 과거 일차원적인 관계가 아닌 다차원적인 관계에 의한 표현의 양상을 보인다. 그의 저서 및 작품은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사고의 발현이라는 의미에서 건축사적 의미를 전하여 줌으로써, 1960년대 이후 독일건축세계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건축가 중의 한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웅어스는 본인의 확고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건축의 접근에

있어 이러한 시대적 사고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의 건축은 유추와 추상화의 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추상화의 과정은 변증법적 관계, 대립의 조합, 단순기하학에의 관심 그리고 형태학과 변형<sup>2)</sup> 등의 관계 설정에 의한 접근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의 목적은 웅어스가 주장하는 건축적 접근 방법을 건축가 본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sup>3)</sup>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세계를 기반으로 마그리트의 회화적 개념과 웅어스의 건축적 개념을 고찰하고 이러한 개념이 웅어스의 건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르네마그리트작품에서 보이는 역설적 의미에서의 이중성에 대한 의미와 웅어스의 건축의 이중적 속성(Janus Gesicht)를 고찰하고 이러한 개념이 웅어스의 건축에서 어떻게

\* 정회원, 동의공업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Michel Foucault, Des autres espaces 이 글은 Centre d'études architecturales(Paris 1967년 3월)에 실렸다가 다시 L'architecture(1968년 4월)에 발췌되었다. 건축역사학회, 제 8권 3호 p.97에서 다시 인용

2) 한혜진·성인수 O.M.Ungers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권 제2호 2002년 10월 27일, p.439

3) O.M Ungers, 10 kapital über Architektur, Dumont, 1999, p.852

구현되고 있는가를 옹어스의 건축적 사고가 가장 잘 구체화 된 것으로 여겨지는 프랑크프루트 건축박물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중성의 의미는 역설적 의미로 하나의 대상이나 공간에 두개의 상반된 개념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사용하였다.

## 2. 르네 마그리트 작품의 이중성

### 2.1. 다르게 생각하기

초현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르네 마그리트(René Francois Ghislain Magritte)의 작품은 작품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지를 당황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과연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조차 고민을 하게 하는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초현실주의 작품은 그 이전의 미술과 달리 오직 외부세계에서만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20세기 미술사의 중요한 발견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sup>4)</sup> 이는 이미 작품의 대상으로서의 재현의 의미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마그리트 본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나의 그림을 상징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작품의 진정한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상징적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시적 요소와 이미지의 신비함을 간과하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신비함을 감지한 게 되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음으로써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만약 신비함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것이다. 다르게 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고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다르게 생각하기’의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그리트 스스로 다른 사고의 방법이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일상적인 현상이나 사물을 보여진 모습의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구체화 방법의 하나로 마그리트는 ‘역설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물을 낯설게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우리가 친숙한 사물에 주목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새로움이 생겨나지 않음- 사물을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마그리트가 채택한 것이 역설인 것이다. 마그리트는 사물을 다른 곳에 위치시키거나 다른 것과 관계시킴으로써 사물에 대해 다르게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오브제의 탐구를 의미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사물의 일상적 이미지, 사물을 지시하는 명칭을 결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낯익은 사물들은 이질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sup>5)</sup>

4)S. 알렉산드리아, 이대일역, 초현실주의 미술, 열화당,1988, pp.5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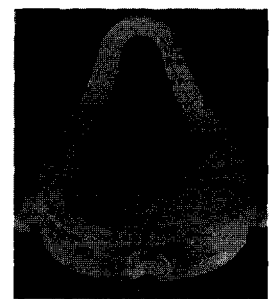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버나드 노엘(Bernard Noel)은 “ 마그리트의 그림 안에서 두 오브제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 만남은 정신적 오브제를 형성한다.”<sup>6)</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상적인 대상을 결합하여 기존의 보편적인 의미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상식에 의한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사물 그 이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2.2. 역설적 이중성-의도된 관계성

마그리트의 작품 ‘필수품’<그림 1>에서 보이는 것은 ‘뒤샹의 샘’<그림 2>처럼 일상의 사물이 화장실에서 전시관이라는 장소적 조건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치를 얻는 바와 같이 일상의 사물의 스케일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일상적인 배경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 변화에 의한 새로운 느낌을 관람자에게 전하여주고 있다.



<그림 1> 필수품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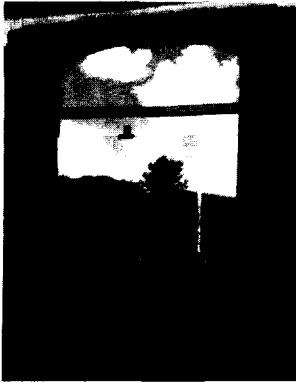


<그림 2> 뒤샹 샘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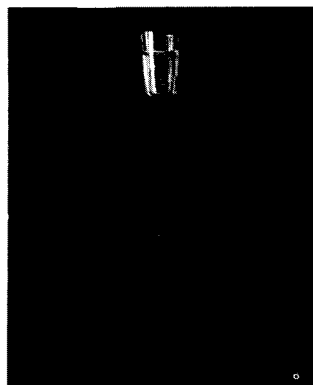
‘인간의 조건 1’ <그림 3>은 창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의 흔적으로 방의 내부에서 바라본 창문 앞에 그림에 의해 지워진 외부 풍경을 다시 묘사하여 놓은 작품으로 ‘내부와 외부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그림의 외부 풍경이 실제 보다 작거나 크게 그려짐으로써 외부 풍경과 그림틀 안에 있는 풍경은 서로 명확히 구분된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일반 풍경화와 같이 그림 안에 그려진 외부 풍경은 그림틀 안에 갇힌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 장소와 무관하게 위치되어 질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존재함으로써 외부 풍경과 그림의 풍경은 분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 1’은 교묘하게 외부 풍경을 내부에 놓여있는 캔버스위에 원근법이라는 그림의 형식을 탈피하여 그림의 풍경과 외부의 풍경이 하나로 되어 서로의 영역 안으로 혼재되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가 외부이며 어디까지가 내부(그림)인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켜 각각의 영역의 한계 및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마그리트는 ‘인간의 조건 1’에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이 두 현상의 상호관계, 즉

5)김기혜, 르네 마그리트 회화에 있어서의 역설 연구, 현대미술논집, 현대미술학회, 1993,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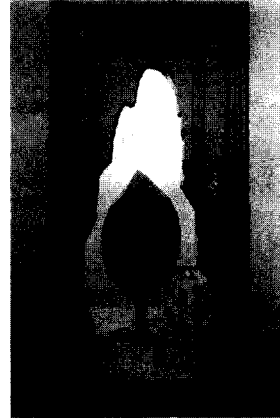
6)Magritta,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77, p.24



<그림 3> 인간의 조건 1 1933



<그림 4> 헤겔의 휴일 1958



<그림 5> 뜻밖의 대답 1933



<그림 6> 사랑스러운 경치 1935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간의 동일성을 확산시키고,<sup>7)</sup> 내부이면서 외부이며 외부이면서 내부인 공간을 그려냄으로써 두 대상간의 관계성에 의하여 생기는 내부/외부의 이중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간의 의도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헤겔의 휴일’<그림 4>에서는 두 가지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이며 공통된 관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보이는 서로 관계가 없는 대상의 병치에 의해서 생기는 신비로움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제어된 공통성(주제)에서 야기되어 지는 신비로움을 이야기한다. ‘헤겔의 휴일’에서는 마그리트는 펼쳐진 우산 위에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을 그려놓았다. 여기서 그는 물이라는 주제 하나로 엮여지는 두 가지 대상간에서 파생되는 모호한 신비로움을 전하여 주고 있다. 물과 관계된 두 대상물, 즉 물을 거부하는 우산과 물을 담고 있는 컵에 의해 파생되는 물을 거부하는 동시에 물을 인정하기도 하는 서로 상반된 이미지의 합성에 의해 생겨나는 다른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마그리트가 이야기하는 회화<sup>8)</sup>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뜻밖의 대답’<그림 5>과 ‘사랑스러운 경치’<그림 6>에서 하나의 사물이 가지는 이중적 의미를 마그리트는 문의 문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소재이고 사각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다<sup>9)</sup>. 이는 문이라고 하는 폐쇄된 벽면에 있는 열림의 대상으로써의 문 안에 다시 열림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문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열림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단합의 의미로 인식시킴으로써 문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통과와 의미를 인식시키고 있다. 즉 하나의 대상이 동시에 열림과 단합이라는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사물 자체의 인식이 아닌 사물의 본질적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다.

마그리트의 작품은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을 제어된 공통성을 통

하여 통일된 초점으로 모아주는 함으로써 역설에 근거를 둔 변증법적인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그의 이미지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의도 불가능한 우주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sup>10)</sup> 이는 정과 반은 모순을 포함하고 모든 경험의 기반이 역설을 활발하게 제시하는 함을 산출하는 쪽으로 선택된다는 것으로 “마그리트는 오브제를 질문으로 불러내는 자신만의 복잡한 작동을 만들어 냈으며, 다른 초현실주의자들이 사용했던 자동적이고 우연적인 방법보다 더 사색적이고 숙고적이었다. 그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어떤 대답이 각각의 친숙한 오브제에서 발견이 될 때까지 일련의 명상적인 드로잉에서 가정들을 발견하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작품에 적용되는 이 원리는 일종의 헤겔식의 역설의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의 주요동기로서 작용하는 상반되는 것들의 결합이다”<sup>11)</sup>라고 설명되며 오브제가 결합되는 다양한 방법들은 역설을 통한 사색적이고 숙고적인 작업으로 요약된다. 마그리트 작품 속의 사물은 우연적인 만남이 아닌 의도되어진 조작의 과정으로 의미 없는 대상간의 병치가 아닌 의미 있는 공존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 3. 웅어스의 건축개념

#### 3.1. 대상의 재인식

웅어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그 중 하나로는 마그리트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다.<sup>12)</sup> 마그리트의 그림세계는 전장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대상과 그림을 낯설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상의 재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추출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세계를 넘어 중첩된 상상의 세계 그리고 정신적 세계로 마그리트는 이해하고 있다.

7)수지 개불릭, 천수연 옮김, 르네 마그리트, 시공사, 2002, p.91

8)Ibid., p.13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세계를 넘어서는 Meta-reality를 불러 일으키는 수단으로 마그리트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

9)Ibid., p.96

10)Ibid., p.113

11)김기혜, op. cit., p.99

12)O.M.Ungers, op. cit., p.852

이러한 정신적 세계에 대한 추구는 옹어스가 “건축의 과제를 아이디어, 사고와 개념의 시각화와 건축적 구현”<sup>13)</sup>의 개념적 세계로 말함으로써 근대의 즉물적 사고에 대한 시대적 반향과 엮여 있다. 이러한 개념의 구체화는 실재하는 장소와 환경의 변화 과정을 통해 존재하지 않았던 경험과 새로운 사고를 전달할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옹어스는 “현실을 그 주어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주어진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개념이 가져다주는 고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사고로,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자유로울 때 새로운 세계, 즉 대상의 재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옹어스가 말하는 무한한 해석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신과 상상의 침투인 것이다.<sup>14)</sup>

옹어스의 건축에 대하여 프리쯔 노이마이어(Fritz Neumeyer)는 “옹어스는 건축된 현실로서의 도시를 새롭게 테마화하고 있다. 이는 우연히 마주친 것에 대해 노래하는 목가적 시를 통해 눈앞에 발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명제를 도입하여 사실과 의미사이에 놓여있는 가교를 미리 선취하기 위함이며, 이 가교를 통해 하나의 이념을 장소 속으로 투영하여 그 장소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주체성의 형식을 얻게끔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 한다.<sup>15)</sup> 이는 장소와 개념이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어된 공통성(주제)아래 즉, ‘이념과 장소의 대화 속’에서 생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건축의 창조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그리트가 이야기하는 일상적 대상물의 다르게 보기와 같이 기존의 근대적 사고체계의 한계를 넘어 ‘본다’라는 행위를 단지 수동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해석학적 과정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옹어스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혹은 정신적인 상징 또는 비유를 사용한다.……비유는 조절된 간접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인 Allegorie 라는 말은 그리스어 ‘allos’와 ‘agerenein’ 에서 왔는데 이는 ‘다르게 말하기’를 의미하며 보다 이중적이고 의미심장한 언어를 암시한다.”<sup>16)</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르네 마그리트가 이야기 하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다르게 생각하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 3.2. Janus Gesicht - 대립의 공존

옹어스는 그의 저서 *Sieben Variationen des Raumes über die sieben Leuchter der Baukunst von John Ruskin*<sup>17)</sup>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건축의 이중적 속성(Janus Gesicht)이라는 주제로 몸체(Körper)와 내부공간(Raum)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이러한 두 가지 목표설정을 쾨르겔(Sörgel)은 건축의 이중적 속성(Janus Gesicht)이라고 규정지었다.<sup>18)</sup>- ‘건축의 본질이 시각적 몸체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형상인가 그릇인가, 매스인가 빈공간인가, 핵인가 껍질인가, 물질인가, 막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축의 본질을 공간의 창조로 여기는 슈마르조우(Schmarsow)의 사고와 몸체적 형태를 만드는 예술로서의 뵘플린(Wöfflin)의 예를 들며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건축이론의 역사에 있어 두개의 다른 기본적 입장의 표현이며 동시에 건축예술의 기본적 갈등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sup>19)</sup> 이는 옹어스가 프리쯔 슈마커(Fritz Schmacher)가 건축에 있어서의 예술성을 공간조형과 몸체조형간의 적절한 관계로 보고 있는 바와 같이,<sup>20)</sup> 건축논쟁에 있어 공간조형의 예술과 형태조형의 예술사이의 우위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한 일이며 내부와 외부 둘러싸임과 둘러싸임의 요소의 이중 작용으로 상반된 개념은 서로를 부정하는 의미에서가 아닌 상호 보충적인 보완원칙을 기초로 하여 서로 상반되는 것들의 조화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옹어스는 건축이란 결국 프리쯔 슈마커가 주장하는 주고/받음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옹어스는 건축의 2가지 관련성에 대하여 하나를 장소와의 관련성, 즉 실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와 역사적 의미 등이며 다른 하나를 건물의 설계가 드러내는 예술적 타입으로 나누며 “건축을 창조한다는 것은 현실을 하나의 이념, 하나의 변화된 이질적 관점으로 채운다.”<sup>23)</sup>고 말한다. 건축의 창조는 현실과 변화된 관념, 일상과 다르게 보기의 만남으로 장소와 관념의 대화는 “장소는 관념을 창출하며 관념은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sup>24)</sup>으로 헤겔이 말하는 정반합적 과정인 것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에서 장소와 관념의 결합은 새로운 의미와 장소를 창출하는 것으로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상적 사물의 역설적 변형을 통한 이중적 의미의 새로운 인식과정인 것이다.

프리쯔 노이마이어는 옹어스가 새로운 사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대립의 붕괴’로 보며 옹어스 건축철학의

13)O.M.Ungers, op. cit., p.852

14)O.M.Ungers, *Morphologie City Metaphors*, Verlag der Buchhandlung Walter König, 1982, p.13

15)Fritz Neumeyer 지음, op. cit., p.18

16)Ibid., p.13

17)Verlag Gerd Hatje. 1985

18)Oswald Mathias Ungers, *Prinzipien der Raumgestaltung*. Arch+ 65, p.45

19)O.M.Ungers, *Sieben Variationen des Raumes ueber die Sieben Leuchter der Baukunst von John Ruskin*, Verlag Gerd Hatje, 1985, 서문

20)Fritz Schmacher, *Das Bauliche Gestalten*, Birkhaeuser, 1991

21)Fritz Neumeyer 지음, 진경돈·정준영·박인원·송백희 옮김, Oswald Mathias Ungers 건축이념과 작품론, 미건사, 1995 pp.12-13

22)Fritz Schmacher, *Das bauliche Gestalten*, Birkhaeuser p.11 “Alles Gestalten is ein Wechselspiel zwischen diesem Geben und Nehmen”

23)Ibid., p.232

24)O.M.Ungers, *Sieben Variationen des Raumes über die Sieben Leuchter der Baukunst von John Ruskin*, Verlag Gerd Hatje, 1985

중심범주를 이룬다고 본다.<sup>25)</sup> 옹어스는 알베르티(Alberti)의 'Varietà in unità' 즉 통일속의 다양성과 동시에 니콜라스 본 쿠크스(Niklaus von Kues)가 주장하는 대립의 붕괴(Zusammenfall der Gegensätze)를 이야기 하고 있다.<sup>26)</sup> 대립의 붕괴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속성의 독자적 의미에 대한 비판으로 건축의 고유한 본질은 내부와 외부, 몸체와 공간, 둘러싸인 것과 둘러싸는 것과의 이중 작용이며, 두 가지 극단의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개의 세계가 서로 모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대치시키기 보다는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는 원칙과 그 원리의 다양한 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타적/ 대립이 아닌 관계의 형성/보완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작용의 보완적 개념은 건축 공간의 형성에 있어서도 건축적 공간이 동질하고 균일한 중성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은 동질하고 빈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질로 충만한 아우라가 있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고 중첩 되지 않으면서 위치를 규정하는 관계의 다발로 이루어진 것"<sup>27)</sup>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의 다발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체로써의 고유성과 함께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옹어스의 건축은 관계에 의한 상호보완적 결과물로 각각의 대상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옹어스 작품에서 나타난 이중성의 표현

옹어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이중성의 표현은 정사각형의 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 이상의 신비로움을 간직하도록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명쾌한 만큼 비밀에 찬 것은 없다"<sup>28)</sup>라는 문장처럼 가장 명확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이해 가능한 것과 그 형태가 함축하고 있는 이해가능하지 않은 것의 상반된 속성을 간직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옹어스의 기하학/정방형에 대한 집착은 기하학/정방형을 통해 우주론적 형이상학적 매혹감을 표현한 것으로 마그리트가 이야기 하는 일상의 변형을 통한 신비스러움에 대한 추구처럼 가치적인 객관적 명확성의 기하학 형태의 변형을 통한 주관적 시적 이미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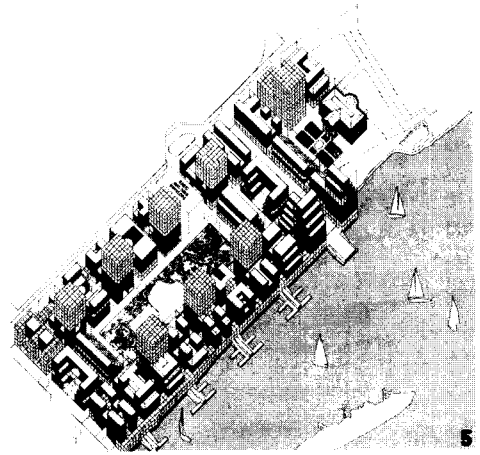
옹어스는 기하학을 "형식적 요소의 제한된 개념적 자산으로부터

25)Fritz Neumeyer 지음, op. cit., p.15

26)O.M.Ungers, 10 kapital ueber Architektur Ein visueller Traktat, Dumont, 1999, p.848

27)Michael Foucault Des autres espaces 이글은 Centre d etudes architecturales(Paris 1967년 3월)에 실렸다가 다시 L'architecture(1968년 4월)에 발췌되었다. 건축역사학회 제 8권 3호 p.98에서 다시 인용

28)Fritz Neumeyer 지음, op. cit., p.22



<그림 7> 루즈벨트 섬 계획안, 1975

터 무제한적인 해결의 가능성"<sup>29)</sup>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재하는 혼돈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일한 논리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루즈벨트 섬을 위한 현상설계(뉴욕, 1975)<그림 7>에서 옹어스는 정방형의 형태를 모든 건축물의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각각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표현해내고 있다. 이는 출발로써의 근원에 대한 집착인 동시에 한계로써의 변형을 통하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의 다양한 내용을 충만히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각형의 형태는 출발점으로써의 원초적인 의미와 변형의 결과물로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옹어스의 건축의 이중성에 대한 표현은 건축의 근본을 이루는 몸체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에서 나타난다. 1984년 6월 1일 개장한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그림 8>은 옹어스가 자신의 건축이론을 구축한 이후에 그의 이론을 구체적인 건축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프랑크 프루트 건축박물관은 4층의 기



<그림 8> 박물관 외부전경

성이 표현되고 있다.

평면 구성에 있어 기존 빌라의 직사각형의 형태를 중심으로 외부의 회랑을 계획하고 내부에는 중정의 전시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사각형의 확장과 분할에 의한 기존 빌라의 직사각형적인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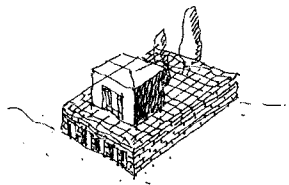
존 빌라를 가운데 두고 외부와 빌라 내부를 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된 것으로, 짐승의 집이라는 주제를 기조로 하여 장소적 의미의 재발견과 매스와 공간 구성의 이중적 속

29)Fritz Neumeyer, architektur 1951-1990 Oswald Mathias Ungers, pp.224-235

태는 내부공간에서 정사각형의 형태로 수렴되어 나타남으로써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처럼 집속의 집이라는 주제를 구체화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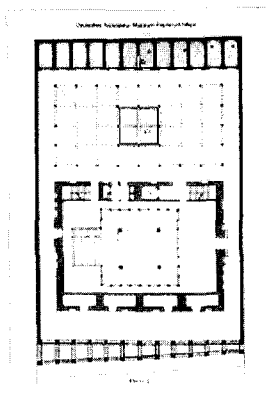


<그림 9> L'importance des merveilles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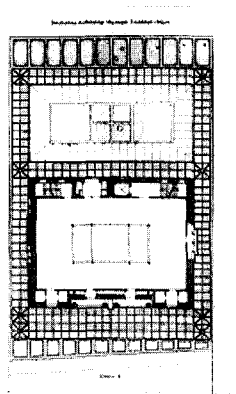


<그림 10> 개념스케치

공간적 구성에 있어서 웅어스가 의도한 것은 두개의 상반된 내/외부 공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으로 그가 주장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의 융합(Das Thema der Inkorporation)'의 과정을 보여준다. 열림과 닫힘이라는 주제를 반복 중첩시킴으로써 무의미하게 서있던 기존빌라의 외면이 내부와 외부의 두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존빌라의 외면이 가지는 외부공간의 이미지는 주위에 새롭게 계획된 회랑으로 인하여 1층에서 내부공간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기존빌라의 외관에서 읽혀졌던 폐쇄적인 내부공간은 천창으로 유입되는 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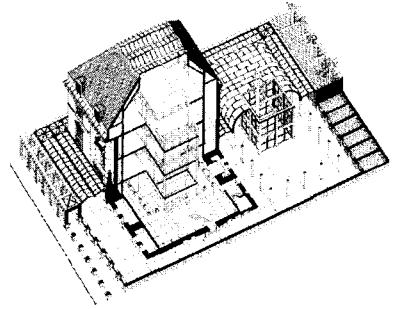
<그림 11> 1층 평면도



<그림 12> 2층 평면도

<그림 9><그림 10> 내부공간의 분할에서 보이는 사각형태로의 전이는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은 기존의 상태에 의해 제한되어 나타나는 변형의 대상인 동시에 기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변형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적 존립이 아닌 관계성에 의한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웅어스는 건축형태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정방형을 프랑크 프루트 박물관에서는 반대로 주변의 기존형태의 변형의 결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정방형을 출발의 원형인 동시에 변형의 결과물으로써 정방형에 출발/결과, 원형/변형의 이중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그림 11><그림 12>

공간적 구성에 있어서 웅어스가 의도한 것은 두개의 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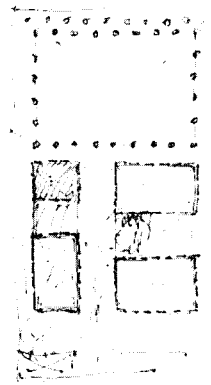


<그림 13> 단면투상도

통해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된다.<그림 13>

빌라내부의 공간은 Volume안에 Mass를 계획함으로써 집안의 집이라는 의도되어진 주제를 통해 내부공간의 중정에 외부공간의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내부공간인 동시에 외부공간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들어가면 그 내부공간은 다음공간의 외부공간이 되는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

의 공간이 외부인 동시에 내부인 공간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노력은 웅어스의 초기스케치<그림 14>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내부 전시공간의 진입을 최종안에서는 측면으로 유도함으로써 외부에서 인지하였던 기존빌라의 외부입면이 내부공간에서 관람자의 정면에 위치하여 내부입면으로 명확히 인지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몸체가 내부와 외부를 규정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면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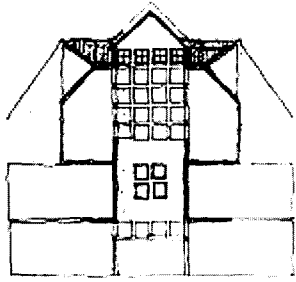
<그림 14> 평면스케치

Volume과 Mass의 조합을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개방과 닫힘에 의한 공간적 경험을 의도하기 위해 내부 구성에 있어서도 마그리트의 인형속의 인형(puppe in puppe)의 개념이 드러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여러 장의 스케치에서 보이는 기존 빌라 내부공간의 Volume과 Mass의 구성은 격자무늬를 사용하여 주변 중정 공간과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내부 중정의 구성도 중간층에서 분리되어 있어 시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5> <그림 16>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내부 공간의 중정 부분이 전 층으로 계획되어 시각적으로 Volume안의 Mass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연계는 외부공간/내부공간, 외부공간/내부공간이라는 공간적 흐름을 관람자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17><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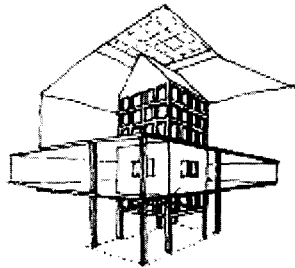
이러한 내부/외부공간의 공간적 영역에 대한 모호한 구분은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에서와 같이 내부이면서 외부이며, 외부이

면서 내부인 공간의 내부/외부의 이중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속된 공간 특성과 고정된 격자시스템은 하인리히 뵘플린(Heinrich Wöflin)이 이야기 하는 “고전적 건축에서는 으레 정지한 상태의 미를 추구하지만 바로크적 아름다움은 운동감을 통한 아름다움이다. 전자에서는 ‘완전무결한’ 형태가 그 주종을 이뤄 영원불변한 비례적 완벽성을 가시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러한 완결된 존재의 가치는 생동하는 생명의 이념 앞에서 빛을 잃고 만다”<sup>30)</sup>라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선적/회화적 구분을 힘들게 함으로써 형태가 주는 안정감과 공간의 연결이 주는 변화감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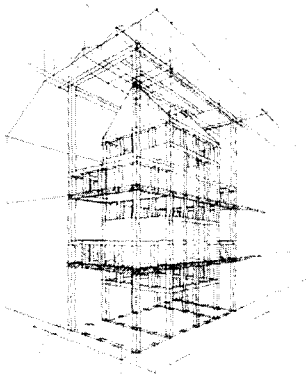


<그림 16> 단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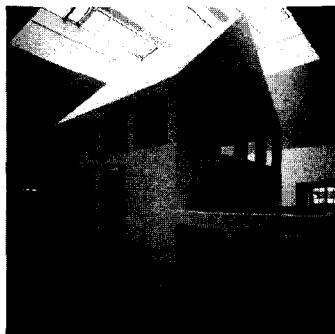


<그림 15> 단면스케치

웅어스가 말하는 건축학적 형상화는 우연한 착상의 결과가 아니라 개별적 경우마다 그 자체로 정확한 형상 논리학에 의해 규정되는 과정으로, 하나의 이념을 장소 속으로 투영하여 그 장소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주체성의 형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의도된 통일성의 이중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마그리트의 경우에서와 같이 서로 상반된 사물을 하나의 주체를 통해 병치시킴으로써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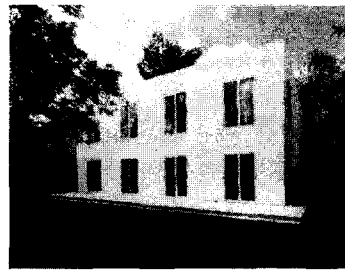
<그림 17> 내부투시도



<그림 18> 내부전경

이중적 속성에 대한 다른 예는 Köln Müngersdorf 1995-1995에 계획된 주택에서 나타난다. 외관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창과 문의 구분의 소멸이다. 입면에 계획되어진 개구부의

특성을 무특성화 시킴으로써 문인 동시에 창이며, 창인 동시에 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개구부의 구분을 없애버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성적이며 단순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그림 19> 이에 대하여 울리히 막스밀리안 슈만(Ulrich Maximilian Schumann)은 “볼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성적이고 단순한 건축일수록 더 많은 다양성이 부여 된다”<sup>31)</sup>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문과 창이라는 구분보다는 개구부라는 근본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문과 창의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개구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에 답함으로써 마그리트의 그림 <뿔박의 대답>에서와 같이 열림과 닫힘이라는 개별적 의미가 아닌 개구부라는 근원적인 의미를 인식시키고 있다.



<그림 19> Koeln 주택외부전경



<그림 20> Koeln 주택내부

마그리트의 물의 거부와 수용이라는 ‘해결의 휴일’에 서처럼 형태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개구부는 창문을 수용하는 문이며, 문을 수용하는 창문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조지 짐멜(Georg Simmer)이 이야기하는 시각과 운동에 의한 문과 창의 구별을<sup>32)</sup> 거부하는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구부의 무특성에 대한 표현은 내부와 외부의 실을 연결하는 모든 개구부를 동일한 모습으로 계획하여 개구부의 내부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형태 및 디테일의 동일한 처리에서도 표현된다. 이는 이쪽과 저쪽 또는 저쪽과 이쪽이라는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무특성화를 통한 이중성의 표현으로 이해된다.<그림 20>

## 5. 결론

웅어스와 르네 마그리트의 역설적 이중성은 다르게 생각하기의 과정으로 니체나 하이데거의 사고와 같이 전체조건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웅어스의 이중적 표현은 기존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노

31)archithese, 95년 6월, p.44

32)Georg Simmel, Das Individuum und die freiheit, fischer tachenbuch verlag, 1993 pp.7-11

30)박지형, 하인리히 뵘플린, 미술사의 기초개념, 시공사 p.103

력의 결과로 가지적인 한계의 세계를 넘어 은유, 유추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에 대한 갈망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측면을 넘어 정신적 세계의 표현을 강조하는 웅어스의 건축의 창조성은 “회화의 기능은 시정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지, 세상을 수많은 물질적인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다”<sup>33)</sup>라는 마그리트의 사고와 연관되어진다.

둘째, 웅어스나 마그리트 모두 일상의 대상을 역설적인 방법을 통하여 두 대상간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대립의 붕괴를 통해 주어진 관념의 세계를 극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웅어스와 마그리트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다룸에 있어, 두 대상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과 보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두 대상이 하나의 주제 안에서 관계할 때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결국 무의미하게 병존하였던 대상을 의미 있는 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웅어스와 마그리트의 이중적 의미의 공존 가능성을 개별적 대상의 상호 관입, 원형과 변형 그리고 개별적 특성의 제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웅어스와 마그리트는 개념적 명제를 사용함으로써 사실과 의미 사이에 놓여있는 간격을 연결하고, 새로운 의미를 추출해 냄으로써 의미가 사실 속으로, 사실이 의미 속으로 투영되어 새로운 주제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역설적인 의미의 이중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웅어스의 이중적 표현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한 본질 추구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마그리트의 이중성은 주체와 객체의 관점에서 동등한 의미를 획득하고, 이러한 표현과정은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재현의 한 과정으로 벨라스케즈의 ‘시녀들’이란 그림의 해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인식의 주체이자 동시에 인식의 대상인 것처럼 건축이라고 함은 결국 주고받음의 관계로 이해하는 웅어스의 건축의 이중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원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웅어스의 건축의 이중적 속성은 건축의 출발로써의 근원과 한계로써의 변형을 통하여 그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시각이 주는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이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역설적 이중성을 통하여 르네마르리트가 추구하였던 바와 같이 본질 추구에 대한 갈망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수지 개불릭, 천수연 옮김, 르네 마그리트, 시공사, 2002
2. Fritz Neumeyer, 진경돈·정준영·박인원·송백희 옮김, Oswald Mathias Ungers 건축 이념과 작품론, 미건사, 1995
3. Georg Simmel, Das Individium und die Freiheit,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1993
4. O.M.Ungers, Architekt, Verlag Gerd Hatje, 1994
5. Oswald Mathias Ungers, Architecture as theme, Electa, 1982

6. O.M.Ungers, Morphologie City Metaphors, Verlag der Buchhandlung Walter Koenig, 1982
7. O.M.Ungers, Sieben Variationen des Raumes über die Sieben Leuchter der Baukunst von John Ruskin, Verlag Gerd Hatje, 1985
8. O.M.Ungers, 10 kapital über Architektur Ein visueller Traktat, Dumont, 1999
9. 김기혜, 르네 마그리트 회화에 있어서의 역설 연구, 현대미술논집, 현대미술학회, 1993
10. 김동영, 자그 라강의 환유와 은유 개념에 의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해석연구, 미술교육논총, Vol. 15 2002, pp.329-342
11. Archithese 5, 1996, pp.44-48
12. Oswald Mathias Ungers, Prinzipien der Raumgestaltung. Arch+ 65, pp.41-48

<접수 : 2003. 12. 29>

33)수지 개불릭,op. cit., p.152